

새로운 커피·문화를 만나는 '제4회 동명커피산책'

10월26일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 100여 점포 참여·34개 프로그램 커피 문화 통해 힐링·여유 즐기길 올해의 커피 무등상 시상도 예정

광주 동구가 동명동만의 차별화된 문화를 바탕으로 커피를 즐기며 여유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기획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0월 26일 동명동 카페거리와 여행자의 ZIP(집) 일원에서 도심 속 가을 축제인 '제4회 동명커피산책'이 열리기 때문이다.

동명커피산책은 광주 관광의 명소로 꼽히는 동명동을 배경으로 커피 문화를 통해 힐링과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지난 2021년 시작으로 올해 4년째를 맞았으며 첫 회부터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는 축제로 화제가 됐다.

특히 개성 있는 카페와 디저트·소품 가게들이 밀집해 있어 '동리단길'로도 불리는 동명동 카페거리에서 열려 광주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해는 'NEW COFFEE, NEW CULTURE(새로운 커피, 새로운 문화)'를 주제로 100여 개 점포가 참여한다. 특히 5개 테마, 34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지난해 축제보다 한층 더 확장된 규모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민들을 맞

이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탈 경쟁, 온리 취향'의 주제로 펼쳐지는 동명동 바리스타들의 핸드드립 커피 어워드 '저스트 어워드(Just Award)' △동명동을 산책하며 다양한 카페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카페 투어 프로그램 '노런 저스트 워크(No Run, Just Walk)' △동명동 카페문화의 진수를 담다, 커피와 디저트를 코스로 즐기는 '동명 커피 다이닝' △커피를 소재로 한 시민 참여형 경연대회 '신춘문예, 로고송 페스티벌' △커피 인플루언서의 커피 인문학 강연 등이다.

이번 축제의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저스트 어워드'는 동명동 카페 30여 곳이 참여해 '올해의 커피 무등상'을 선정, 시상하는 프로그램이다. 바리스타가 거리로 나와 시민들에게 직접 내린 특별한 커피를 선보이며, 시민들은 취향에 맞는 커피에 투표, 최고의 커피를 선정한다.

축제 때마다 조기 예약 완료돼 이른바 '오픈 런' 이슈를 만들었던 동명동 카페 투어 프로그램 '노런 저스트 워크'는 올해도 다시 만날 수 있다. 동명동을 산책하며 특색있고 다양한 카페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는 카페 20곳이 참여해 5개 코스를 선보인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동명 커피 다이닝'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



광주 동구가 오는 10월 26일 동명동 카페거리와 여행자의 ZIP(집) 일원에서 도심 속 가을 축제인 '제4회 동명커피산책'을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동명커피산책.

광주 동구 제공

는 커피 코스를 모티브로 기획됐다. 동명동 바리스타만의 커피 코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동명 카페거리의 F&B 문화를 하나의 코스로 만끽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동명동 여행자의 ZIP(집) 앞편에 설치된 주 무대에서는 커피 유튜브 강연, '카페에서 듣던 그 노래'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싱어송라이터 공연 등이 펼쳐져 행사의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카페거리를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골목형 플라마켓', 커피를 소재로 한 '로고송 페스티벌', '신춘문예', '버싱킹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된다.

이외에도 올해는 '친환경 캠페인'을 통

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지양한다. 부스에서 사용되는 식기는 다회용·친환경 소재의 물품을 사용하고 행사장에 식수대를 배치한다. 또한 기후 행동 콘텐츠 전문기업과 협업을 통해 '플라스틱 없는 카페문화' ESG 캠페인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각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은 13일부터 동구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큰 인기를 끌었던 동명 커피산책이 올해는 더 커진 규모로 돌아왔다"면서 "이번 축제를 계기로 '제4회 동명커피산책'이 전국 대표 커피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ilbo.com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 광산구, 전국 최초 제정

광주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광산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민선 8기 광산구가 역점 추진 중인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로 추진될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식의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실행력을 뒷받침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대화, 지속가능 일자의 기본 정의, 향후 지속가능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구가 될 '광산구지속가능일자리회' 구성·운영,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 선정 기준,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전국적으로 일자리와 관련해 많은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기업인, 감정노동자, 이동노동자, 비정규직 등 분야를 세분화한 조례가 대부분이다. 전국 140여개 지자체가 시행 중인 '일자리 기본조례'는 미취업자,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지원, 직업교육이 주 내용이다.

광산구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는 일자리 기본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자의 질, 사회통합성, 생태지향성, 사회적 대화 등을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 선정 기준을 담아 시대 변화에 발맞춘 일자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제조업,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 마을일자리 등 분야별 지속가능 일자리 의제 발굴을 위한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광산구는 지속가능 일자리 지원 조례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 이를 통한 지속가능 일자리 모형의 정립·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철 기자**

'인문 라이프러리' 운영 서구공공도서관

광주 서구공공도서관은 지역민들의 인문소양 함양과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인문 라이프러리(life+library)-일상 속 인문학 올림'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인문 라이프러리는 2024년 사람과 삶, 세상을 잇는 인문, 서구공공도서관 B.1에 맞춰 추진하고 있는 인문 특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9-10월까지는 '철학자의 음악서재'를 주제로 3차례에 걸쳐 인문학 강연을 운영한다.

세부내용은 △이달 12일 음악이 빚어낸 감정의 향연 △이달 26일 쇼팽하우어 철학으로 노래하는 삶 △10월10일 음악을 통해 바라본 니체 등이며 정빛나 더예 듀엔 대표가 강연자로 나선다.

오는 10월26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마지막 차시에는 지역민의 인문 문화 감성 충족을 위한 시간으로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특별한 연주가 펼쳐진다.

지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공공도서관(062-654-4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이 기자**

온누리상품권 홍보 행사 개최 북구, 상권 활성화 도모

광주 북구가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광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홍보 마케팅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온누리상품권의 장점을 알려 주민들의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유도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북부센터 △전남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전남대 총학생회와 협력·추진한 이번 행사는 온누리상품권(카드형) 5000원 이상 구매자에게 5000원을 추가 증정해주는 구매보상 이벤트와 홍보 부스 등이 운영된다.

진행 시간은 행사 첫날(11일)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고, 둘째 날(12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이와 더불어 전남대 후문 골목형상점가 일원에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1만원 이상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상품가 쿠폰 등을 제공하는 돌림판 경품 행사가 경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아이패드, 갤럭시 스마트 워치, 에어팟 맥스 등을 경품으로 주는 응모권 추첨 행사도 12일 오후 5시 용흥어린이공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지역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이번 행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계기가 돼 상점가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북구 생활안정지원금 접수와 수령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복지도우미들이 11일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접수와 수령을 도와주고 있다. **김양배 기자**

서구, 중소기업 15개소와 청년 채용 MOU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정규직 채용 등에 관한 약정 체결

광주 서구는 지난 10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된 관내 중소기업 15개소와 청년 정규직 채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디지털 뉴딜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다'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청년을 연계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54명의 정규직 취업을 지원했으며,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성과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확보한 국비 2억여원을 포함한 사업비 3억4000만원을 재원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날 서구는 사업에 선정된 나코스(유), 선행하우징, 농업회사법인 ㈜운림가 등 총 15개 기업과 청년 정규직 채용 및 신규 채용자 인건비 80%(월 160만원)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서구는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구

직 희망 청년 모집에 나선다. 기업·청년 매칭데이(공개면접)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청년을 최종 선발하고 1년간 고용유지 시 취업유지장려금 최대 100만원, 개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계발금 연 50만원 및 직무 교육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 청년, 서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